

## 삶과 죽음의 경계, 고구려 벽화무덤

장은정 105호 고구려실 18:00~18:30

고대 사회에서는 대형 무덤을 축조하여 죽은 이가 삶의 영역 안에서 소유했던 지배적 힘과 권위를 죽음의 공간 속에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고구려 무덤은 강돌이나 다듬은 산돌을 쌓아 만든 돌무지무덤과 커다란 판석으로 무덤방을 만들고 흙을 덮어 만든 돌방무덤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고대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그러하듯 통치 질서를 공고히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지배층의 무덤 축조에 많은 사회적 공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집안 일대에 군집을 이루어 분포하고 있는 대형 돌무지무덤들은 이를 잘 보여 주는 예입니다. 이러한 대형 무덤을 축조하는 행위는 죽은 이를 위한 것 뿐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권위와 힘을 대외적으로 과시함으로써 지배 질서를 더욱 강화하는 수단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축조한 무덤에는 죽음에 직면해 사후 세계를 바라보는 현세인의 내세관과 함께 현실 생활의 모습이 투영되었습니다. 이를 생생하게 보여 주는 것이 돌방무덤 안에 그려진 다양한 벽화들입니다. 영토 확장 과정 중 다양한 문화 접촉을 통해 형성된 고구려 무덤의 벽화 예술은 무덤 내부의 장식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유한성에 직면했던 고구려인들이 죽음 이후 세계와 관련해 던졌던 의문과 그들의 해답을 형상화한 것이었습니다.

벽화가 그려진 고구려 무덤은 옛 수도 일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기와 지역에 따라 여러 주제가 다루어졌는데 생활풍속, 장식무늬, 사신도四神圖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중 현세의 생활공간과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한 생활풍속도에는 내세에서도 삶이 동일한 방식으로 지속되기 바라는 고구려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고구려인들은 성스러운 존재들이 등장하는 천상 세계를 벽화에 담아 죽음 이후 도달할 세상을 현세와 전혀 다른 성격의 곳으로도 형상화하였습니다. 장식무늬로 불교의 정토(淨土)를 상징하는 연꽃무늬가 자주 선택되며, 넝쿨무늬·동심원무늬·‘왕(王)’자 무늬·구름무늬 등이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현실적 공간의 내세와 초월적 성격의 내세가 공존하던 고구려 무덤 벽화는 6세기 이후 현실 세계가 사라지고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특히 사신에 대한 인식이 체계화되면서 사신의 비중이 높아지고 신령스러운 모습으로 형상화됩니다. 반면 연꽃을 비롯한 불교적 제재는 벽과 천정을 장식하는 하나의 부수적 요소가 되는데 이는 내세에 대한 고구려인들의 인식 변화를 반영합니다.

제697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10월 26일)

## 오스트리아 궁전이야기

고지훈 기획전시실 18:00~18:30

‘오스트리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모차르트, 잘츠부르크의 소금광산, 클림트 등을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혹 오스트레일리아와 혼돈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스트리아를 듣고 ‘합스부르크’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학창 시절 세계사 교과서에서 배웠던 듯한 ‘합스부르크’가 600년의 시간을 머금고 지금 우리에게 왔습니다.

유럽에는 여러 왕조가 있습니다. 합스부르크도 그중 하나입니다. 스위스 북부의 작은 성에서 출발한 합스부르크 가문은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스페인, 헝가리 등 많은 지역을 600년 이상 다스리며 유럽의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여러 인물들 중 막시밀리안 1세는 1508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에 오르며 합스부르크 왕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루돌프 2세와 페르디난트 2세는 다양한 예술품을 수집하였고 펠리페 4세와 레오폴트 빌헬름 대공에 의해 스페인과 네덜란드에서 수집된 명화들이 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역사상 가장 사랑받았다고 하는 마리아 테레지아 왕은 근대화를 이끌며 궁정문화와 수집품을 대중에게 공개하였습니다. 이후 빈미술사박물관이 건립되어 매혹의 걸작들이 오스트리아 빈미술사박물관에 모이게 되었고, 오스트리아와 수교 130주년 기념하여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생소하고 어려운 역사이야기를 관람객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고자 연구하는 큐레이터들이 박물관에 있습니다. 교육담당자 입장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합스부르크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구현하였는지 궁금하시다면 저와 오스트리아 궁전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요? 박물관 교육에 관심 있는 분이나 어린이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더욱 환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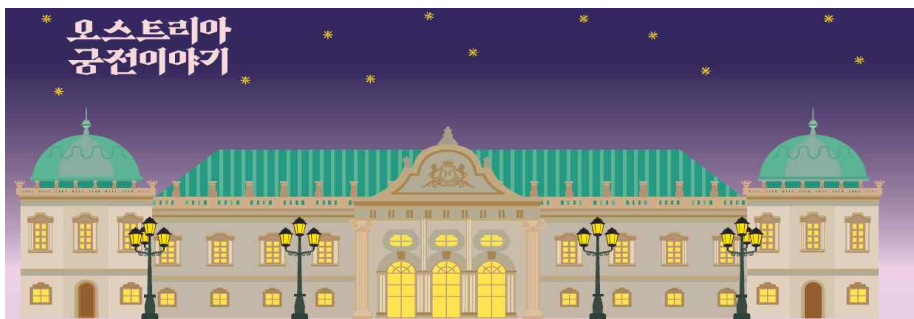


그림1. 오스트리아 궁전이야기 체험 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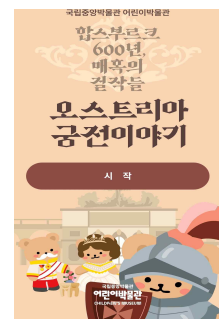


그림2. 온라인활동지

제697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10월 26일)

## 인장: 아이덴티티의 날인

양희정 306호 메소포타미아실 19:00~19:30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예술과 물질문화에서 정체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인장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주인이 도안과 명문을 선택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표현하고 드러냈습니다. 실감개 모양을 한 원통형 인장에는 다양한 도안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어 축축한 점토판에 인장을 굴리면 도안이 반전된 모습으로 찍혀 나옵니다. 원통형 인장은 쉐기문자가 발명된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점에 등장했으며, 아람 문자를 쓴 파피루스에 점토 도장을 찍는 것이 보편화되는 기원전 제1천년기 말까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원통형 인장은 문서를 인증하려는 행정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아주 사적인 물건이기도 해서 종종 장신구처럼 착용하거나 몸에 부적으로 지녔습니다. 원통형 인장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지 않는 보석이나 준보석을 비롯한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원거리 무역망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뜻합니다. 원통형 인장은 작고 휴대하기 좋아서 고대 근동 전역에 도상을 전하는 자연스러운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채무변제증서 보관함**  
기원전 20~19세기  
아나톨리아 킬테페  
출토 추정, 점토,  
3.7×4.5×1.4cm



1) 신 앞의 두 영웅



3) 신 앞의 인간과 신



2) 신을 알현하는 남자



4) 신에게 경배자를 이끄는 중재의 여신



제697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10월 26일)

## 합스부르크의 비상

박진일 기획전시실 18:00~18:30

A.E.I.O.U. (Austria Est Imperatree Orbi Universae)

오스트리아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

합스부르크를 상징하는 이합체시離合體詩 ‘A.E.I.O.U.’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정체성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사실 합스부르크가는 10세기 스위스 북부 어느 변방의 백작 가문이었습니다. 1273년 루돌프 1세가 대공위시대를 끝내고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로 즉위하며 합스부르크는 왕가의 반열에 서게 되었고 곧 오스트리아 지역으로 진출합니다. 왕국, 공국, 후국, 백국 등 영방들로 이루어진 신성로마제국에서 황제는 7명인 선제후選帝侯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선출되어 제한적인 권력을 누릴 뿐이어서, 제후들은 자신의 영토 안에서 사실상 독립적인 지위를 누렸습니다. 합스부르크를 유럽 역사의 중심으로 이끈 이는 A.E.I.O.U.를 창안한 프리드리히 3세의 아들 막시밀리안 1세(1459~1519)입니다.

1508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에 오른 막시밀리안 1세는 도박에 가까운 정략결혼과 초상화를 이용한 이미지 선전으로 유명합니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상속녀인 부르군트의 마리와 결혼한 그는 아들과 딸을 스페인, 손자와 손녀를 보헤미아 왕실과 이중 결혼시켰습니다. 운 좋게도 모두 성공하여 드넓은 영토를 얻었지만, 운이 없었으면 오스트리아 대공국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막시밀리안 1세는 초상화를 많이 그려 군주로서의 위엄과 명성을 강조했습니다. 베른하르트 슈트리겔의 제자가 그린 이 그림에서 막시밀리안은 갑옷과 대관식 예복을 입고 명예의 천이라 불린 화려한 천 앞에서 비스듬히 서 있습니다. 이후 이런 양식의 초상화가 유럽에서 유행했는데 마치 요즘 정치인의 선거 포스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막시밀리안 1세의 초상